조계종 신도등록사업 개편 추진

평생신도제, 신도조직 활성화 돌파구 될까

新 신도 2만 여 명으로 급감
신도증가에도 교무금은 답보
사찰신도 종단신도화 고심
중앙신도회 등 긍정적 반응

"조계종 사찰에는 다니지만 그동안 '종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종도로서 교무금을 내면 멤버십 혜택이 있다곤 하지만 납부가 귀찮기도 하고요." (서울 불광동 임○○ 씨)

조계종이 정체된 신도등록 사업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조계종 '평생신도' 제도가 그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준비 중인 '종단 신도조직과 신도등록사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신도의무인 교무금 연납은 일괄납부로 바뀌며 사찰과 종단의 교무금 배분도 종단 수입으로 일원화된다. 사찰의 신도등록 참여가 저조하다는 판단과 신도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신도등록 업무도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 신도회가 담당하며 대신 교무금 재원 일부를 신도회가 사용하는 것이 모색되고 있다.

'신도조직 활성화' 동력 마련 고심

이 같은 신도등록 사업 개편 방침은 먼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구랍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16수도권 교구신도회 간담회서 공개됐다.

이날 간담회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불자인구가 300여만 명 감소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직후 열린 만큼 '신도조직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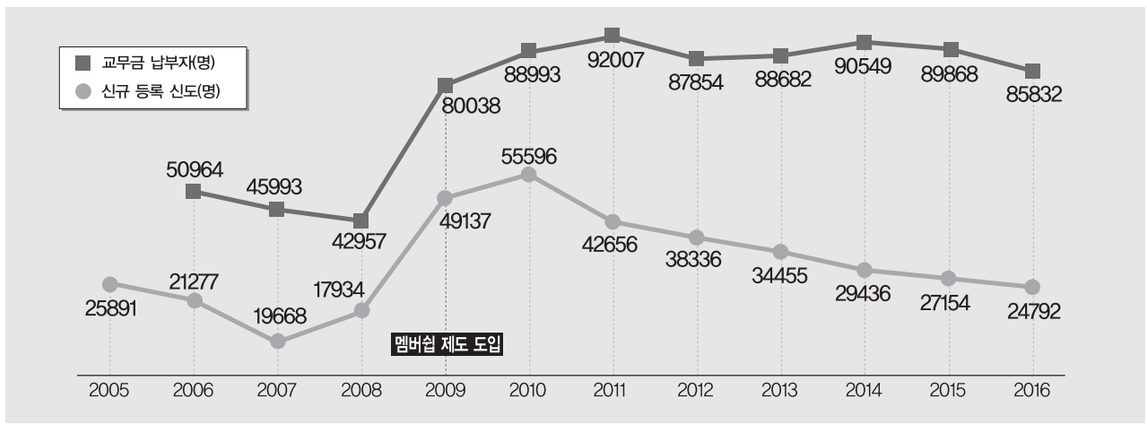
특히 조계종 포교원은 '평생신도 및 통합신도증 도입'이란 방안을 내놨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기 조계종 포교원 포교차장은 "매년 내야 하는 교무금 납부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신도회 등을 신도관리 업무 및 재원활용에 포함시켜 신도조직 활성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 제도 추진 배경을 밝혔다.

매년 감소 신규 신도가 원인

포교원의 '평생신도' 제도 추진은 매년 감소하는 신규 신도 등록과 저조한 교무금 납부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신도'는 조계종이 사찰의 신도와 별개로 종단 신도로 관리하는 것을 칭한다. 조계종 신도는 매년 1회 교무금 1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조계종의 '신도 등록'은 1995년 실시된 이후 1996년 6만여 명을 기점으로 가입이 지속 감소해 2008년 1만7900여 명에 그치기도 했다.

감소하는 조계종 신규 신도&답보상태인 교무금 납부 신도



조계종 포교원이 2009년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가 4만90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2010년 5만5600여명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 현재 멤버십 도입 이전인 2만5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2011년 4만2600여명, 2012년 3만8300여명, 2013년 3만4400여명, 2014년 2만9400여명, 2015년 2만7100여명, 2016년 2만5000여명)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기존 신도의 교무금 납부 이행도 지지부진하다. 포교원 자료에 따르면 교무금 납부 신도는 2008년 2만5000여명에서 2009년 3만900여명, 2010년 3만3400여명, 2011년 4만9400여명, 2012년 4만9500여명, 2013년 5만4200여명, 2014년 6만1100여명, 2015년 6만2700여 명으로 매년 2만 명 넘게 신규 신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행률은 바닥 수준이다. 교무금 납부 신도로만 보면 대형사찰 1곳에 등록된 신도 수보다도 적은 수치다.

이동선 포교원 교화팀장은 "현재 멤버십은 문화재관람료 사찰 무료입장, 한방병원 진료할인 등에 국한돼 유지되고 있다. 신용카드 혜택에 비해 미약한 조계종 멤버십을 통한 유인이 한계에 달했다는 내부 분석"이라고 말했다.

각 사찰신도회와 신도등록 업무 공유

사찰 신도를 종단 신도로 끌어 안는 작업이 더딘 것은 사찰 측의 적극적인 동참이 부족했던 것도 한 요인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2015년 교무금 납부 사찰 11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명 미만이 교무금을 납부하는 사찰은 1073곳에 달했다. 3천명 이상이 교무금을 납부하는 사찰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김상기 포교차장은 간담회에서 "소규모 사찰의 경우 사찰 인원에 비해 종단 측과의 배분과 관련한 행정서류 제출 등 업무가 수입에 비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분담금 외에도 매년 납부하는 교무금이 준조세화 될 것이라는 사찰 측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종단 신도 확대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은 먼저 종단 신도증 내 사찰 CI를 첨가하는 등 신도들의 사찰 소속감과 종단 소속감을 일치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사찰에서 기도 참여 시 부여하는 축원카드 번호도 표기하고 RF전산화로 기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신도증 통합 작업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교구신도회나 사찰신도회가 신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대신 교무금 일부를 신도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반응은 긍정적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장성원 행정지원팀장은 "신도회 차원에서도 권역별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신도조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신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에 신도회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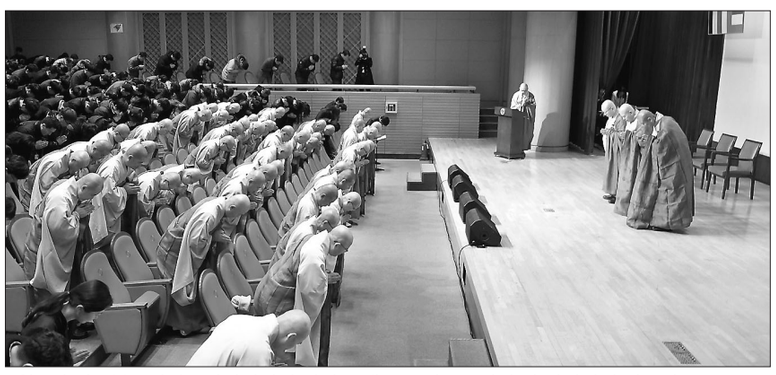
주요 종단, 새해 맞아 불교발전 서원

조계 · 태고 · 천태종
신년하례 및 시무식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이 신년하례와 시무식 등을 통해 정유년 새해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불기2561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각 기관 교역직 스님, 종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서 "매년 설계하는 신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지 않으면 과거만 되풀이하는 습관만 키우게 된다. 거창한 구호보다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일, 오랫동안 해오던 일, 나아가 꼭 하고 싶은 일에 참된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것이 곧 새로움이고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당부했다.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

이어 종무원들은 성만제 종무원조합 위원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지혜와 신심으로 종단을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로 만들어나가고, 모든 스님과 신도들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친절로 응대하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불기 2561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원로 스님들과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의장 및 종회의원 스님, 지방교구 종무원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혜초 스님은 원로의장 덕화 스님 대독을 통해 "수행자들은 인내와 끈기로 무장하고, 어느 한 순간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정진에 진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스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종도 한명 한명이 직접 표를 행사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종도들의 뜻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에 중앙종회와 각 종무기관 협의를 거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4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종단 소임자와 사부대중이 참여한 자리서 "크게 깨닫고 능히 자비하며 시절을 따라 중생을 교화함이 부처님 길이라.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이를 떠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신년법어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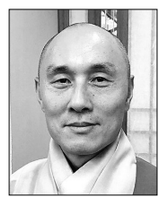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낡은 의식과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 시대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신임 포교부장에 가섭 스님

교육원 연수국장 무일 · 불학연구소 국장 범우 스님


가섭 스님


무일 스님


범우 스님

조계종 포교원과 교육원이 부 · 국장급 인사를 소폭 단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실서 가섭 스님을 신임 포교부장으로 임명했다. 전임 포교부장 무각 스님은 최근 건강악화로 인해 한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섭 스님은 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사미계, 200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안양암과 청용암 주지,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 교육국장,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과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2일 교육원장실서 신임 연수국장 무일 스님,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범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수국장 무일 스님은 봉선사를 재적본사로 해 화암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하고, 해인사 승가대학 및 율학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서 수행정진했으며 해인사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범우 스님은 묘정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하고,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 후 동국대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종단에서는 2016년 교육원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출가상담사 및 교육아사리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雲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雲門寺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17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우편, 전화, 직접 방문접수 가능)
도착일시 _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_ 2017년 1월 17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_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바랍니다.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연수교육사항 : ①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연수 ② •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 4학년 졸업 후 서광스님 '명상 심리상담사 자격증'취득
3)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4)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요강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7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당일접수도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_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전문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명성
원감 진광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홈페이지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